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주간충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민국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서천로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진용용 편집: 양재용

죽음에 관한 고찰 1

죽음 앞에 선 인간의 삶

인간의 생명은 살기 위한 것이다(창 1:26~28). 그러나 이 생명의 뒤편에는 죽음이라는 존재가 생명을 조종하고 있다. 죽음의 공포는 인간의 모든 행위와 인간이 의식하는 모든 것 속에 깊이 침투하고 있는 괴물과 같은 존재이다. 사실상 죽음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불가해한 산물이다. 인간에게 주어진 엄청난 가능성과 약속, 또 준비와 완성, 이 모든 것들이 어찌하여 죽음이라는 것 안에서 끝나야 하는 것일까? 이 인간의 종착점은 왜 있어야 하는 것(창 2:15~17)일까? 죽음은 인간의 궁극적인 좌절이기도 하다. 우리는 절대로 죽음을 피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은 이 죽음이 인생을 궁극적으로 무의미하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죄악이라고 생각한다(전 1:2~4, 10~11).

죽음에 대한 태도 두 가지를 생각해 보자. 첫 번째로 죽음은 궁극적으로 선한 것이라는 태도다. 즉 죽음이 없는 삶은 그 의미와 중요성이 약화된다는 의견이다. 삶의 참된 가치가 죽음이라는 부정적인 면과 관계없이 보일 때는 죽음의 진정한 가치를 모른다는 것이다. 회람 사람들이 믿는 모든 신들의 삶이 이 경우에 속한다. 이 신들은 영원히 산다는 점에서 질적으로 인간과 다르다. 회람의 신들은 영원히 살도록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운명과 상관없이 산다. 그래서 Laszlo Versenyi는 "신들의 삶은 긴박성이 없으며, 한 순간이라도 중요하게 느껴질 때가 없다. 삶 자체가 이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인간과는 반대로 지나가는 슬픔이나 괴로움에 대하여 진지할 것이

인들은 계속해서 살고 있다"라고 <Man's measure>라는 책에서 밝혔다. 참으로 죽음이라는 실존과 또 죽음의 불가피성은 종종 개개인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와 중요성을 생각하게 한다(전 2:16~17). 그럼에도 모든 인간에게 죽음은 여전히 가장 무서운 공포의 대상이다.

두 번째 죽음에 대한 태도는 종교와 관련된 것이다. 즉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간의 공포심을 종교가 이용하여 죽음을 최후의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죽음은 종교가 만들어 낸 것이 아니며, 오히려 종교에 큰 도전이 된다. 왜냐하면 어느 종교든 종교 철학 차원에서 이 죽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적어도 사람들에게 이 죽음을 용납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며, 죽음의 영향력을 완화시킬 어떤 방법이나 죽음을 본질적으로 차단할 소망을 제시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인간의 가장 큰 대적이며 인간을 가장 괴롭히는 죽음 앞에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길을 제시할 수 있다. 전통적인 종교와 종교 철학자들이 인간의 죽음에 관하여 제시한 특이한 제안을 간단히 살펴보자.

먼저, 힌두교는 '비존재로의 길' (The Way of Negation)을 제시한다. 힌두교의 경전인 <베다(Veda, 지식)>는 죽음이나 죽음의 공포에 관하여 별로 관심이 없다. 그러나 후에 편집된 비의적(秘儀的) 경전인 <우파니샤드(Upanishads)>는 인간과 우주에 대한 신비적 관념과 영혼에 관한 문제를 다루었다. 여기서 영혼은 영원한 것으로 각 개개인의 가장 심오한 존재이며 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가장 깊은 본질이라고 보았기에 죽음은 전혀 실체적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힌두교에서 보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죽음이 아니라 영혼의 끊임없는 재생이다(창 3:19). 이 완전한 지식은 곧 비존재(Negation)라는 말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이 인간의 착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며, 이를 통하여 세상과 인간에 속한 모든 것을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 환상적인 것들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한다. "한편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나"(히 9:27). 아멘.

믿음과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가는

충현 사랑관

이웃 사랑 실천의 일환으로 시작된 사랑관(충현기도원 내)이 준공되었습니다. 사랑관은 연면적 2,590㎡(783.47평)의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구성된 다목적 시설로, 다양한 체육활동은 물론 숙박과 결혼식도 가능하도록 건축되었습니다. 지난 3월 17일에 있었던 준공감사예배에서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마 26:10~13)는 주제로 설교하신 김성관 위임목사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요일 5:4)으로, 이 시설의 이름처럼 사랑(요일 3:14~16)으로 그리스도의 몸(골 4:11~12)을 세우아가는 함을 선포하였습니다. 동

시에 각 부서가 적극적으로 사랑관을 이용하여 믿음과 사랑으로 연합된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준공된 사랑관은 기존의 시설(다니엘관, 에스더관)과 최근에 건축된 루디아관(다목적 체육시설), 엘리관(콘도식 숙박시설)과 더불어 온 성도가 기도하고, 교제하며 복음을 깨닫는 최적의 시설임을 확인합니다. 타 교회도 이용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충현기도원으로 문의(031-766-5425) 바랍니다.

*사랑관 안내 본지 7면

오늘, 공동의회

안건: 제44대 장로, 24대 안수집사, 52대 권사 피택의 건

일시: 오늘(27일), 4부예배 후(14:00)

장소: 충현교회 본당 대상: 본 교회에 등록된 세례교인

*별도의 교구모임은 없으며, 공동의회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4월

2011년
교회
일정

- 3월 (주) 피택지교회 개장(찬양예배 후)
- 6일 (수) 장기당회(수요2부예배 후)
- 17일 (주) 동라주일(2, 3부 가락연가예배) 및 장애인주일
- 18일 (월) 고난주간 전교인 특별사색기도회(22일까지)
- 22일 (금) 성금요일 특별예배 및 제3차 성찬식(금요찬양집회)
- 24일 (주) 부활주일, 부활주일 특별찬양 및 제2차 학습세례식(찬양예배)

OUR ADVOCATE

***⁽¹⁾My little children, I am writing these things to you so that you may not sin
And if anyone sins, we have an Advocate with the Father, Jesus Christ the righteous;
⁽²⁾and He Himself is the propitiation for our sins; and not for ours only,
but also for those of the whole world. (1 John 2:1~2)***

The theme of this letter centers on a Christian's abundant life through fellowship with God and other believers. The fullness of joy that flows from God's redeemed people comes from their assurance of salvation. Knowing that our sins are forgiven allows believers to experience complete joy. When our sins are cleansed away then happiness sets in because of righteousness. As Christians we are still not perfect because we still sin, but John's letter tells us that we can still have an abundant life through the forgiveness of our sins in daily life. When you confess your sin before Jesus, He is faithful to forgive you, "If we confess our sins, He is faithful and righteous to forgive us our sins and to cleanse us from all unrighteousness"(1 Jn. 1:9). Sin is a terrible thing. It destroys our fellowship with God and other Christians. If you sin or even say that you have no sin, and don't confess, then forgiveness and fellowship within the family of God is broken. Look at 1 John 2:28, "Now, little children, abide in Him, so that when He appears, we may have confidence and not shrink away from Him in shame at His coming." Sin will make us ashamed at Jesus' coming. God's provision for daily victory comes through our Advocate, Jesus Christ. As long as your life is with God in Christ you have victory even when you make sin.

The aim in the Christian life is not to sin. John tells us, "My little children, I am writing these things to you so that you may not sin"(1 Jn. 2:1). An awareness of sin brings us to the Savior. No one can fix their sin problem by themselves. If you want to be saved you have to acknowledge that you are lost. If you want to go to heaven you have to realize that you are bound for hell. Jesus Christ came to save sinners. Upon receiving Jesus Christ by faith we are forgiven, "in whom we have redemption, the forgiveness of sins"(Col. 1:14). What then should be our goal as believers? We should aim for daily victory. Jesus is our example. He equips us to win, "In Him we have redemption through His blood, the forgiveness of our trespasses, according to the riches of His grace"(Eph. 1:7).

All Christians have an Advocate. John says, "And if anyone sins, we have an Advocate with the Father, Jesus Christ the righteous"(1 Jn. 2:1). It doesn't matter what race or gender, if anyone sins there is an advocate. As Christians, facing the reality of imperfection isn't always easy, but knowing that God still loves is a great encouragement. Nothing can separate us from His eternal love, "For I am convinced that neither death, nor life, nor angels, nor principalities, nor things present, nor things to come, nor powers, nor height, nor depth, nor any other created thing, will be able to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God, which is in Christ Jesus our Lord"(Rom. 8:38~39). Whoever comes to the Advocate will have victory. This Advocate comes to our aid when we stumble. He understands our sufferings, "For we do not have a high priest who cannot sympathize with our weaknesses, but One who has been tempted in all things as we are, yet without sin"(Heb. 4:15). Our Advocate always intercedes on our behalf, "Therefore He is able also to save forever those who draw near to God through Him, since He always lives to make intercession for them"(Heb. 7:25). Jesus Christ is our perfect Advocate on earth and in heaven, "Do not let your heart be troubled; believe in God, believe also in Me. In My Father's house are many dwelling places; if it were not so, I would have told you; for I go to prepare a place for you. If I go and prepare a place for you, I will come again and receive you to Myself, that where I am, there you may be also"(Jn. 14:1~3). Believers are covered from both sides, so that when the enemy comes against us our Advocate is always there.

The atonement for sin was accomplished by God through Jesus Christ's death, "and He Himself is the propitiation for our sins; and not for ours only, but also for those of the whole world"(1 Jn. 2:2). Jesus Christ paid for the sins of the world with His own blood. How wonderful is that? Do you truly appreciate His sacrifice? Jesus saves you forever! He reconciles us to our Father,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ure; the old things passed away; behold, new things have come. Now all these things are from God, who reconciled us to Himself through Christ and gave us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 namely, that God was in Christ reconciling the world to Himself, not counting their trespasses against them, and He has committed to us the word of reconciliation. Therefore, we are ambassadors for Christ, as though God were making an appeal through us; we beg you on behalf of Christ, be reconciled to God"(2 Cor. 5:17~20). Christ's work of reconciliation was completed on the cross, but His work as our Advocate continues. We are to invite others to abundant life. The call to consistent Christian living comes in view of Christ's atonement and continuing work as our Advocate.

My dear friends, do you really believe that you have an Advocate? Please don't rely on your worldly education, success, and reputation or money to make you happy. Pride in these things causes sin and destroys your fellowship with God and others. Jesus is the Creator God. He is the King of kings. He is our Advocate for eternal blessing. Let your happiness and pride rest in Him. Amen. 

우리의 대언자

“나의 자녀들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씌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요한일서 2:1~2)



김성완 목사

요한일서의 주제는 하나님과 다른 신자들의 교제를 통한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에 있습니다. 속죄 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흘러 나오는 기쁨의 완전함은 그들이 받은 구원의 확실함에 기인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압으로써 신자들은 완전한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게 되면 의로 말미암아 행복이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기에 완전할 수 없지만 요한의 편지는 우리가 날마다 죄 사함을 받아 여전히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회개할 때 미쁘신 예수님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일 1:9).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사랑을 파괴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죄를 짓거나 심지어 죄가 없다고 말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의 용서와 사랑은 깨어집니다. 요한일서 2:28을 보십시오. “자녀들이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령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죄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우리를 부끄럽게 할 것입니다. 날마다 승리하기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우리의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한 여러분은 죄를 범했을 때에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나의 자녀들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씌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일 2:1)라고 말합니다. 죄에 대한 자각은 우리로 하여금 구세주께로 나아가게 합니다.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자신이 없는 자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자신이 지옥을 향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즉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골 1:14). 그렇다면 신자로서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우리는 매일의 승리를 목표로 삼고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분이 되십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엡 1:7).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대언자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요일 2:1)고 말했습니다. 인종이나 성별에 관계없습니다. 누군가가 죄를 범한다 해도 대언자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불완전한 현실을 대하는 것이 쉽지않은 않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큰 위로가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주님의 영원한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랑이나 생명이나 천사들

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롬 8:38~39). 대언자에게 오는 사람은 누구라도 승리할 것입니다. 이 대언자는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의 도움이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 4:15). 우리의 대언자는 항상 우리를 대신해 중보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히 7:25).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과 천국에서 우리의 완전한 대언자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없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 14:1~3). 신자들은 두 세계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원수가 우리를 대적할 때 우리의 대언자는 항상 거기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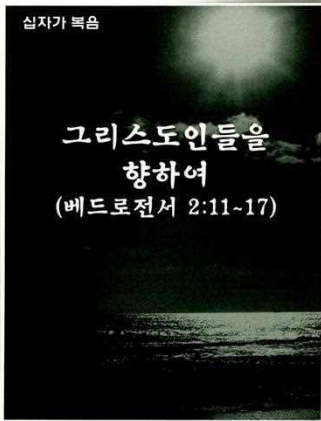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죄의 속량을 이루셨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요일 2:2).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로 온 세상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은 진실로 주님의 희생에 감사하십니까? 예수님은 영원히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십니다. “그러컨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고후 5:17~20). 그리스도의 화목의 사역은 십자가 위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언자로서 주님의 사역은 계속됩니다. 우리는 풍성한 삶으로 사람들을 초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신실하게 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속죄하심과 대언자로 계속 일하심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는 사실을 진실로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는다면 제발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 줄 것 같은 세상적인 학벌, 성공 그리고 명예와 돈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들에 대한 자부심은 죄를 짓게 하며 하나님과 다른 신자들의 교제를 깨뜨립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왕 중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은총을 가져다주시는 대언자입니다. 여러분의 행복과 자랑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하십시오. 아멘. ■

십자가 복음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베드로전서 2:11-17)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 제자로서 다양한 일들을 겪었다. 놀라운 신앙고백을 했지만 이내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은총의 기회를 주셨다. 그는 진심으로 회개하였고, 성령을 받아 초대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였다. 그는 평생 복음을 전하는 데 헌신하였고, 이제 말년에 그는 흠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다. 총 5개 장으로 구성된 베드로전서는 일관되게 '고난'을 언급하고 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한 마디로 줄이면, 예수님을 믿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 고난이 값진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은 산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벧전 1:3~6, 18-19, 2:4~5, 10).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은 예수님이 걸으신 고난의 자취이다(벧전 2:21, 3:14, 4:1~2).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가 근신하여 기도해야 할 이유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고난의 길이기 때문이다(벧전 4:7, 13, 16). 우리는 매 순간 깨어 고난으로 가득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한다(벧전 5:3, 8~9). 반드시 세상의 미움을 받게지만,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다(요 15:18~19).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주님은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하신다.

● 깨끗하여라

"사랑하는 자들이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벧전 2:11). 베드로의 삶은 실패의 연속이었다. 그는 실패의 원인이 육체의 정욕에 있음을 알았기에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 육체의 정욕을 절제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리스도와 전혀 관계없는 세상의 것들(요일 2:15~16)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기쁜 삼아 분별(골 12:2)해야 한다.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된다. 완전히 새롭게 되어야 한다(엡 4:23). 하나님의 사사 삼손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다윗도 넘어뜨린

사탄의 제락은 분명히 지밀하며 위협적이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 깨끗해지려고 할 때 100% 실패한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과 관계를 맺어, 그 은혜와 능력으로만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히 4:15; 고전 10:13).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보혈로만 깨끗해질 수 있다.

● 주의하라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떤 빛을 내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함이라"(벧전 2:12). 세상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추시하고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보배 받은 사신이기 때문이다(고후 5:20). 사신은 하나님과 화목한 자이며, 빛나야 한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히 나의 담을 열기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라 함이라"(벧 2:15~16). 무의식 중이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이어야 한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 5:16). 그리스도인들은 매 순간 깨어 주의하여야 한다.

● 항상 같아야 한다

당시 로마 정권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였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바울이 로마서 13장에서 밝힌 것처럼 로마 정권을 옹리켜 규제 권력으로 인정하였다(롬 13:1, 7). 그래서 비록 인간이 만든 제도일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주를 위하여 동일한 마음으로 순복해야 할 것을 가르쳤다(벧전 2:13~15).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이 세상의 제도권 내에서도 동일하게 행동해야 한다. 항상 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분명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그와 동일한 마음으로 못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왕을 존대해야 할 것이다(벧전 2:17).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자유를 가지고 약용해서는 안 된다(벧전 2:16). 우리는 하늘에 시민권을 둔 하나님의 종이다(벧 3:20). 이 근본적인 진리 앞에 우리는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같아야 한다.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깨끗할 것을 명령하신다. 또한 그리스도의 빛을 내고 있는지 주의하며 이 모습이 항상 같아야 함을 말씀하신다.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며,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영원토록 변함없는 빛을 낼 수 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라.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예수님만을 믿자. "이 죄인을 완전히 하시고 그 내 속에 영원히 거하시라." 아멘.

매시아의 죽음 ①

때가 왔도다

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마 26:41~42)고 기록하였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마태는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가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니라"고 말하며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마 26:45~46)고 기록하였다. '때'를 언급하는 예수님에 대한 두 복음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때'의 의미가 다르다는 것이다. 정확히 말해서 '때'가 강조하고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는 것이다.

우선 마가는 '때'라는 단어를 어떤 사건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였다. "이르시되 때가 왔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마 1:15). 사건이 일어난 그 사실(fact)에 초점을 맞추어 때를 사용한 것이다(마 11:1, 14:35). 이에 반해 마태는 '때'의 단어를 사용할 때 하나님의 섭리의 때,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를 생각하며 썼다. "나아가 임하시라" 등의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마 6:10). 그리고 같이 어떤 사건을 기술할 때 마가가 '때'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사건의 시점을 하나 하나의 사실로서 분명히 밝힌 것에 반해 마태는 그 때(시점)를 통해서 드러나는 전체적인 하나님의 섭리에 더 초점을 둔 것이다. 그래서 동일한 사건을 기술할 때 마태는

'이 잔'(마 26:39, 42), 마가는 '이 때'(마 14:35)라고 기술한 것은 '때'에 대한 마가와 마태의 기발방식의 차이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따라서 겐세마네 동산에서 마가가 기술한 "때가 왔도다"(마 14:41)는 예수님 자신이 가롯 유다를 앞세운 군인들에게 잡힐 그 시점이 왔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또한 마태가 기술한 "때가 가까이 왔으니"(마 26:45)는 하나님께 생각하는 중요한 때, 즉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 두 개의 시선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때가 왔다는 사건의 앞면(마가의 때)과 뒷면(마태를 통하여 이루어진 구원의 시점(마태의 때))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때'는 어디에 있는가? "잠근 것이라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눅 12:2). 우리 모두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며, 그때에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보내는 '이 때'의 두 의미(사건, 하나님의 섭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때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무엇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가? 일할 수 있을 때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라. 전통과 의식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에서 참 평화를 얻도록 십자가를 붙들자. 이렇게 할 때 지금의 때가 힘들지 않을 것이며, 마지막 때가 임하는 것이 두렵지 않을 것이다. "주 예수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아멘.

* 매 주 월요일 새벽기도회(새벽 4:00)에서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시켜주셨다

처음 선교를 가고자 한 마음은 단순한 여행이나 곁을 쌓기 위함이었다. 이런 마음을 품고 선교를 준비했지만 선교를 위한 전도사역이나 기도 부흥회와 팀 모임 및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여행을 가고자 했던 마음은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견문을 넓히고자 했던 마음은 선교지의 영혼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경험해 보고자 했던 마음은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말씀만을 전하자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다.

유민석(성도, 청년1부)

오히려 나에게 용기를 주었다

첫 선교였기에 많은 두려움과 걱정으로 떠났지만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따뜻한 믿음을 주시고 편안함과 그들에게 오직 말씀을 전해야겠다는 사명감까지 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두렵고 부끄럽고 과연 그들에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첫 사역은 다른 팀원들의 사역하는 모습만 바라보았다. 한데 웬일인지 현지인들이 우리를 맞이하면서 오히려 나에게 용기를 주었다. 전도지의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주며 그들에게 전하니 모두 “아멘, 아멘” 하며 답하였다.

양현숙(집사, 3교구)

온 마을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우리는 주님께서 예비해 놓은 많은 영혼을 만났고 영접기도를 했다. 주님의 은혜를 느끼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온 마을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찬송하며 할렐루야를 외쳤다. 특히 뜻을 아는지 모르는지 함께 ‘예수 사랑하심과 할렐루야’를 찬송하는 어린 아이들을 보며 바로 여기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곳이었구나 생각되어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충만했다.

김경복(집사, 4교구)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다

우리는 숙소에서 1시간 이상 떨어진 전형적인 농촌 마을에서 사역을 시작하였다. 집에 혼자 계시던 아주머니가 우리가 들어가자 담 너머에서 일하시는 아저씨를 부르셨다. 땀범벅인 채 일하시던 아저씨는 그대로 집 안에 들어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들으셨고, 집을 나서는 우리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다. 길에서 만난 한 아저씨는 복음을 전해 듣고 어떤 집을 가리키며 그 집에 가 보라고 하셨다. 찾아간 집에서 아주머니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찬양을 하는데 여기까지 따라온 아저씨는 매우 흐뭇해 하셨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을 만나게 하심에 감사드리다.

유준남(권사, 15교구)

나의 열심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여러 번의 선교의 경험으로 교만할 수 있는 나에게 이번 선교를 통해 주님이 하시기 않으면 나의 노력과 의지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셨다. 완악한 선교지 영혼들은 외국인에게는 친절했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욕하고, 침 뱉고, 화를 내었다. 우리의 부족함 언어는 잘 통하지 않았지만 언어의 장벽은 아무 것도 아니었다. 우상과 죄악으로 가득 찬 그 영혼들에게 예수님이 들어갈 틈이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기쁜 소식인 구원의 비말을 전하러 왔는데 그들의 귀와 마음은 닫혀 있었다. 계속되는 거절, 우리는 조금씩 지쳐갔다. ‘아, 나의 열심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다시 한 번 간절히 주님을 붙잡게 되었다.

최현희(집사, 중년복자관)

감사와 기쁨이 넘쳤다

선교 팀 훈련을 찬양예배 끝나고 한다고 해서 처음에는 조금 망설였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새벽예배부터 찬양예배까지 드리고 나서 팀훈련을 한다면 피곤할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팀 훈련은 항상 은혜가 충만하여 모일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쳤다. 영성실사 때는 눈물까지 흘렸고, 모든 훈련을 마치고 사역지로 떠날 수 있었다.

박영환(집사, 11교구)

손짓 발짓 온갖 표현을 다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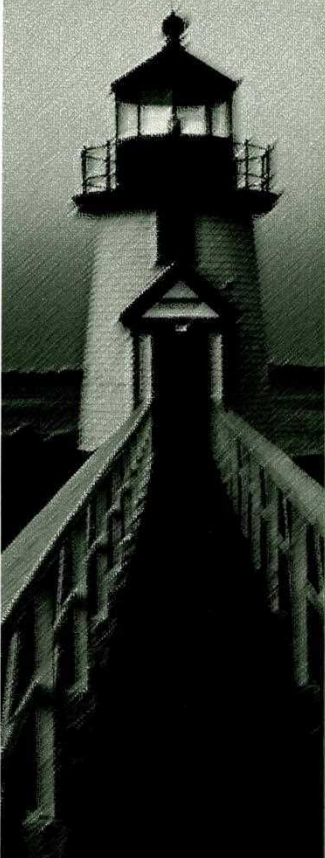
모든 것이 불편하고 너무 힘들었다. 비도 계속 왔다. ‘아, 이게 선교구나!’ 선교가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훈련 받은 대로 복음을 전했다. 하지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결국 손짓 발짓 온갖 표현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

전준희(집사, 7교구)

영혼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처음 가는 선교, 주님께서 무엇인가 뚜렷한 목적이 나 기대를 주실 것이라는 생각보다는 나를 변화시키고 보며 주실 게 있으리라는 생각으로 출발했다. 한국에서조차 제대로 해 본 적이 없는 전도, 믿음이 부족하던 생각으로 많은 두려움과 걱정들로 가득했지만 부족하다는 나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 주셨고 그 가운데 선교지의 영혼들의 마음을 열어 주셔서 믿음으로 그들과 함께 하게 하셨다. 그들이 부족한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허락하셔서 그들의 입에서 영접기도를 들을 수 있게 해 주셨다. 선교를 통해 전도가 단지 나 자신만의 의지나 능력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의 주님의 인도하심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박윤근(성도, 중년복자관)



복음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생님



2011년 전반기 교육운영원이 개강했다. 수요일성경공부를 비롯하여 다양한 강좌가 개설되었는데 특히 교사양성부 과정에 등록한 예비 선생님들, 몇 명이 독특했다. 이들은 모두 올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초등학교에서 예비교사로 봉사하고 있었다.

왜 교사로 봉사하게 되었나?

· '봉사할 때 기꺼이 마라'는 말씀을 듣고 과연 주님이 어떤 것을 깨닫게 해 주실지 기

대하는 마음에 교사의 직분으로 봉사하게 되었다. (김지현)

- 초등부 때 받았던 기억, 감동 그리고 사랑을 다시 돌려주고 싶은 마음에 교사를 하게 되었다. (김은혜)
- 부모님의 권유로 시작하게 되었지만 아이들과 함께 성경을 배우며 영적 성장을 느낄 수 있어서 좋다. (김지현)
- 언니가 교사로 봉사하는 모습을 보며 신앙이 더욱 깊어지는 모습을 보았고, 나 또한 주님을 알아가고 싶은 마음에 봉사하게 되었다. (유지현)
- 말씀을 통해서 교사의 마음을 품게 되었을 때 안 선생님의 적극적인 권유가 있어서 하게 되었다. (한종진)

교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 이유는?

- 교사는 농부다. 교사가 어떤 씨앗을 어떻게 뿌리느냐에 따라 아이들의 자라는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한종진)
- 교사는 이렇다. 언제나 아이들을 사랑으로 감싸줘야 하기 때문이다. (한은혜)
- 교사는 아이들의 거울이다. 교사의 언행이 아이들의 언행이 되고, 교사의 믿음이 아이들의 믿음이 되기 때문이다. (유지현)



삶을 통해 예배드리기

무심코 2010년 새해 첫 날 세운 계획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다이어리에 적혀있는 수많은 계획들 중 제가 이론 것이 단 한 개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 유독 눈에 띄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이 구절을 보는 순간, 저는 한없이 부끄러워졌습니다. 1년 8,760시간이라는 삶의 시간 속에 제가 진정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예배의 삶을 살았던 시간은 단 10%도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저는 단순하면서도 명백한 대답에 이르렀습니다. 기도과 말씀의 부재였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공생애 사역의 바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시간은 양보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다시 눈을 뜨기까지 기도로 자신을 준비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세상의 바쁨을 핑계로 기도와 말씀 시간을 줄여 갔습니다. 그 결과 제 삶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사라졌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능력이 사라졌으며,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는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저는 감사했습니다. 저의 잘못을 알게된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비는 것을 넘어서 삶의 방향을 바꿀 힘을 달라고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이복희(청년1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와 감사함

중학생 때의 저는 정말 '악의 구렁텅이에 빠진 자'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다녔고, 교회에 다닌다고는 했지만 주님을 모르고 다녔다고 할 정도로 그냥 물만 왔다 갔다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고등부에 올라왔고, 선배들과 동기들의 권유로 예비찬양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비찬양대를 한 것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장학생이라는 명분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약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다가 여름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흥회 시간에 다른 선배들, 또래 동기들이 눈물을 마 구미구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냥 남들이 기도하는데 나만 안 하기도 뭘해서, 가식적인 눈물을 흘리며 하면서 기도하는 '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식적인 행동 속에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있었고, 기도를 하는 순간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전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와 감사함을 느낀 시간이었기에, 정말 나 같은 죄인도 이렇게 회개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 뒤로 저의 삶이 180도 바뀌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 주님을 더 생각하게 되었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기부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깨달음의 결과로 지금은 학생회에서 봉사하며 고등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를 이렇게 사용해 주시는 주님의 뜻을 100% 알 수는 없지만 저를 사용하여 주시는 것, 그리고 같이 봉사하는 학생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전혀 인식하지 않았던 두 세계에 대해서도 깨닫게 하심 역시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학교생활과 교회생활에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별로 의식하지도, 걱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나의 모습을 고백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을 잊지 않고 항상 기도하며 부끄러운 제 자신을 회개하는 자가 되고 싶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박종현(고등부)



지난 3월 16일에 충천기도원 내에 위치한 사랑관이 준공되었다. 사랑관은 연면적 2,590㎡(783.47평)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구성된 다목적 시설이다. 대규모 실내 체육활동은 물론 숙박 및 세면시설까지 완비하게 구비되어 있는 사랑관은 교구 및 부서의 집회나 영성훈련을 위한 최적의 장소가 될 것이다. 특히 세련되게 꾸며진 집회실은 여느 결혼식장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으니 결혼을 앞둔 분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 아울러 루디아(다목적 체육시설)와 웰컴랜드(식 숙박시설)도 항시 개방되어 있으나, 사용을 원하는 교구(부서) 및 타고외의 문의를 환영한다.

문의/ 충천기도원(031-766-5425)



체육관



로비



숙소



샤워시설



화장실



집회실

사순절을 알자(3)

사순절의 40일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40'이란 수와 관계되는 사건으로는 노아시대 홍수심판 기간에 40주야를 땅에 비를 쏟으심(창 7:12), 약삭하신 가나안 땅에 12장탄들을 보내셔서 40일 동안 땅을 탐지하게 하신 일(민 13:25),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비 사건에서 악인에게 최고의 태형으로 40대자리를 허용하신 일(신 25:3), 요나가 니느웨를 향하여 40일 후에 무너질 것이라고 외침(욥 3:4), 사울, 다윗, 솔로몬, 요아스 왕 등이 40년간 치세한 것과 40세에 왕이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모세와 관련하여서는 바로의 궁에서 40년간 기르시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연단시키시고(창 7:30), 다시 택한 백성을 이끌고 광야에서 40년간을 방황하게 하시며, 시내산 구름 속으로부터 부르셔서 40일간 금식하며 지낸 후에 두 돌판을 주셨으며(출 24:18; 신 9:11), 여호와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시겠다고 하신 때에 모세가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월드컵(신 9:25) 사순절이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는 예수님과 관련하여 살 펴보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시험받으심(막 1:13), 십자가에서 순양하시고 부활하시까지 40시간, 부활에서 승천까지의 40일간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 90여 회 이상 언급되고 있는 '40'의 숫자적 의미는 '고난과 경신'의 상징적 기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기도

F.P.Tosti

고통 가운데 바깥 내 마음의 만식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주님의 은혜로
무거운 나의 죄를 다 용서하옵소서
이 험한 세상에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나 앞드려 주님께 자비를 구합니다
이 세상 삶이 끝나
주 앞에 설 때까지 날 인도하옵소서
날 인도하소서
주님의 보혈로 날 씻어 정결케 하시고
날 구원하옵소서 오 주여 구원해 주소서
이 세상 죄악에서 오 주여 구원해 주소서
이 험한 세상에서 주여 주여
주 은혜로 구원하소서
나의 주여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충천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서류 오시기 바랍니다.

번호	성명	교육과정	교구 인도자	번호	성명	교육과정	교구 인도자
1835	김보라	청년1부	1 최천숙	1858	이윤재	대학부	22
1836	민창우	2 나영실	2 나영실	1859	이재원	양육부	14 이영숙C
1837	최자영	2 나영실	2 나영실	1860	김기현	초등2부	13 박정기
1838	민지후	영아부	2 나영실	1861	박운우	초등2부	1 강영희
1839	신용화	양육부	11 한영숙	1862	민미영	양육부	3 김두순
1840	지연배	양육부	4 임유선	1863	김혜은	양육부	2
1841	김성준	중등부	2 김성현	1864	이은영	2 김은진	
1842	김혜미	양육부	1 안치주	1865	장대길	양육부	1 김영옥
1843	장예은	초등2부	10 유성남	1866	남경숙	양육부	18 김영옥
1844	김은희	양육부	21 박봉만	1867	박민희	대학부	9 정문호
1845	김주영	청년1부	18 장경미	1868	김태현	양육부	10 이흥옥
1846	김주희	청년1부	18 장경미	1869	매영	외선부	25 유재선
1847	장우성	초등1부	14 오정희	1870	토미	외선부	25 박정혜
1848	한희경	양육부	18 김대희	1871	문경식	양육부	8 이종영
1849	최유진	초등1부	1 권은미	1872	최 이	양육부	12 김영선
1850	최유진	중등부	1 장혜선	1873	손현숙	양육부	13 정영자
1851	김태호	초등2부	23 남현숙	1874	장정아	청년1부	11 함윤자
1852	김지은	중등부	23 김현옥	1875	이아라	양육부	7 조인희
1853	성보은	양육부	2 권은주	1876	조하리	양육부	19 이옥주
1854	정승환	양육부	2 임금순	1877	이세미	양육부	12 이옥주
1855	이정길	양육부	22	1878	신사랑	청년1부	22 신성미
1856	황은희	양육부	22	1879	김경호		22 김동순
1857	이윤아	청년1부	22				

교회 소식

모임

1. 남녀전도회장 설교 및례회
일시: 27일(오전) 15:30 장소: 제1교육관 401호
2. 권사회 전체 설례회
일시: 30일(수) 12:40 장소: 갈릴릴루

발제

1. 박영희 제백만교회 성도의 부흥, 6교구 우성1구(목) / 19일 밤제, 19일 장례
2. 김승욱 성도(6교구 이태원교회) / 16일 밤제, 19일 장례
3. 김재복 태고성도(주정승 장사의 모친, 21일 장례) / 18일 밤제, 21일 장례
4. 최근우 태고성도(서정원 성도의 모친, 6교구 상원9구) / 18일 밤제, 21일 장례
5. 배종욱 태고성도(서정원 성도의 부친, 2교구 상원9구) / 23일 밤제, 25일 장례
6. 김재복 태고성도(서정원 성도의 모친, 2교구 만수구) / 23일 밤제, 25일 장례
7. 박재현 성도(장영진 남자의 남편, 19교구 시흥2구역, 박재현 안수영 교사의 부친, 장영희 권사의 사부, 11교구 / 23일 밤제, 30일 장례

결혼

1. 이석재 군(박수영 장사의 아들, 17교구)와 이선자 양 (이문수 씨, 장영희 씨의 딸) / 4월 23일(토) 15:00, 한국전력공사 본사 대강당 만물봉

장년3부 총동원 초청전도집회

일시: 27일(오전) 12:30
장소: 제1교육관 307호
대상: 60세~69세 남녀성도

장소: 제1교육관 307호

대상: 60세~69세 남녀성도

장소: 제1교육관 401호

대상: 안수집사 12명

장소: 제1교육관 537호

대상: 안수집사 12명

장소: 제1교육관 537호

대상: 안수집사 12명

장소: 제1교육관 537호

대상: 안수집사 12명

장소: 제1교육관 537호

대상: 안수집사 12명

장소: 제1교육관 537호

대상: 안수집사 12명

장소: 제1교육관 537호

대상: 안수집사 12명

장소: 제1교육관 537호

대상: 안수집사 12명

장소: 제1교육관 537호

대상: 안수집사 12명

장소: 제1교육관 537호

대상: 안수집사 12명

장소: 제1교육관 537호

대상: 안수집사 12명

장소: 제1교육관 537호

대상: 안수집사 12명

장소: 제1교육관 537호

대상: 안수집사 12명

장소: 제1교육관 537호

대상: 안수집사 12명

장소: 제1교육관 537호

대상: 안수집사 12명

장소: 제1교육관 537호

대상: 안수집사 12명

장소: 제1교육관 537호

대상: 안수집사 12명

장소: 제1교육관 537호

대상: 안수집사 12명

장소: 제1교육관 537호

대상: 안수집사 12명

장소: 제1교육관 537호

대상: 안수집사 12명

장소: 제1교육관 537호

대상: 안수집사 12명

장소: 제1교육관 537호

대상: 안수집사 12명

장소: 제1교육관 537호

대상: 안수집사 12명

장소: 제1교육관 537호

대상: 안수집사 12명

장소: 제1교육관 537호

대상: 안수집사 12명

장소: 제1교육관 537호

대상: 안수집사 12명

장소: 제1교육관 537호

대상: 안수집사 12명

장소: 제1교육관 537호

대상: 안수집사 12명

장소: 제1교육관 537호

대상: 안수집사 12명

장소: 제1교육관 537호

대상: 안수집사 12명

장소: 제1교육관 537호

대상: 안수집사 12명

장소: 제1교육관 537호

대상: 안수집사 12명

장소: 제1교육관 537호

대상: 안수집사 12명

장소: 제1교육관 537호

대상: 안수집사 12명

장소: 제1교육관 537호

대상: 안수집사 12명

장소: 제1교육관 537호

대상: 안수집사 12명

장소: 제1교육관 537호

대상: 안수집사 12명

장소: 제1교육관 537호

대상: 안수집사 12명

장소: 제1교육관 537호

대상: 안수집사 12명

장소: 제1교육관 537호

대상: 안수집사 12명

장소: 제1교육관 537호

대상: 안수집사 12명

장소: 제1교육관 537호

대상: 안수집사 12명

장소: 제1교육관 537호

대상: 안수집사 12명

장소: 제1교육관 537호

대상: 안수집사 12명

장소: 제1교육관 537호

대상: 안수집사 12명

장소: 제1교육관 537호

대상: 안수집사 12명

장소: 제1교육관 537호

대상: 안수집사 12명

장소: 제1교육관 537호

대상: 안수집사 12명

장소: 제1교육관 537호

대상: 안수집사 12명

장소: 제1교육관 537호

대상: 안수집사 12명

장소: 제1교육관 537호

대상: 안수집사 12명

장소: 제1교육관 537호

대상: 안수집사 12명

장소: 제1교육관 537호

대상: 안수집사 12명

장소: 제1교육관 537호

대상: 안수집사 12명

장소: 제1교육관 537호

대상: 안수집사 12명

장소: 제1교육관 537호

대상: 안수집사 12명

장소: 제1교육관 537호

대상: 안수집사 12명

장소: 제1교육관 537호

대상: 안수집사 12명

장소: 제1교육관 537호

대상: 안수집사 12명

장소: 제1교육관 537호

대상: 안수집사 12명

장소: 제1교육관 537호

대상: 안수집사 12명

장소: 제1교육관 537호

대상: 안수집사 12명

장소: 제1교육관 537호

대상: 안수집사 12명

장소: 제1교육관 537호

대상: 안수집사 12명

장소: 제1교육관 537호

대상: 안수집사 12명

장소: 제1교육관 537호

대상: 안수집사 12명

장소: 제1교육관 537호

대상: 안수집사 12명

장소: 제1교육관 537호

대상: 안수집사 12명

장소: 제1교육관 537호

대상: 안수집사 12명

장소: 제1교육관 537호

대상: 안수집사 12명

장소: 제1교육관 537호

대상: 안수집사 12명

장소: 제1교육관 537호

대상: 안수집사 12명

장소: 제1교육관 537호

대상: 안수집사 12명

장소: 제1교육관 537호

대상: 안수집사 12명

2011년(5차) CMTC 성교수련회

시 간	장 소
18:15~18:25	오리엔탈리언
18:25~19:15	주제강연(84-85호의 교회와 성도)
19:15~19:45	2011년도 신성경회

2011년 CMTC 성교수련회

일시: 4월 9일(토) 9:30~12:30
장소: 제1교육관 501호 (동관 2층 대강당)

3/28 (월)	3/29 (화)	3/30 (수)	3/31 (목)	4/1 (금)	4/2 (토)	4/3 (주일)
설교자/지도자	김성관/김명성	유재진/양효현	문성수/오형식	박용훈/유종원	김익환/김연희	박지훈/김연희
설 교 본 문	메시지의 죽음	로 9:51-62	골 12:1-13	골 13:1-14	골 13:16-21	골 13:16-21
주 목 교 구	전교인	3, 12, 16교구	4, 17, 18교구	6, 14, 19교구	5, 15, 23교구	예배위원회

날짜	예배	설교	사 회 기 도	찬 양
3/30	수요 I 수요 II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는(살전 4:13-18) 김성관 목사 믿음(히 11:1-3) 박익환 목사	이희심 김정훈	부활하신 주 예수(오산나 찬양대 · 오케스트라) 아 하나님의 은혜로(설교와 찬양대)
4/1	금요일회	김성관 목사	강요성	예루살렘 찬양대 · 오케스트라 · 아멘 트리오 / 태니 이장주
4/3	주일 I 주일 II 주일 III 주일 IV 주일 V 주일 VI	우리의 대언자(요일 2:1-2) 김정훈 목사 우리의 대언자(요일 2:1-2) 김익환 목사 우리의 대언자(요일 2:1-2) 김성관 목사 우리의 대언자(요일 2:1-2) 박용훈 목사 우리의 대언자(요일 2:1-2) 김연희 목사 이 사람 바울(행 9:10-15) 김성관 목사	임창욱 정민연 최후원 이현진 김정훈 박지훈	(예배 전 찬양) 렐런이 날 위하여 / 소프라노 안선희(예배 찬양대 지휘) 생명의 양식 외 / 목관 5중주 오 신실하신 주 외 / 목관 5중주 아 하나님의 은혜로 / 뮌헨 온성중창단 충현음악아카데미 성악 창창 / 성도위원회 / 10교구

예배 및 집회 안내 (☎ 02-552-8200)

구 분	시 간	장 소
I	오전 9:00	본 당
II	오전 9:00	본 당
III	오전 11:00 (수, 화, 목요일 제외)	본 당
IV	오전 1:00(목요일 제외)	본 당
V	오후 3:00 (월요일 제외)	본 당
주일전례예배	오전 5:00	본 당
수 요 예 배	I 오전 11:00 II 저녁 7:00	본 당
금요일집회	저녁 7:00	본 당
사백기교회	매일 새벽 5:00	본 당

구 분	시 간	장 소
영 아 부	I 오전 9:00 II 오전 11:00	제1교육관 110호
유 아 부	오전 10:50	제1교육관 201호
유 처 부	오전 10:50	제1교육관 207호
초 중 1부	오전 10:45	제1교육관 407호
초 중 2부	오전 10:45	제1교육관 507호
중 등 부	오전 10:30	갈릴릴루
고 등 부	오전 11:00	제2교육관 4층
대 학 부	(토) 오후 2:00	제2교육관 4층
청 년 1부	(토) 오후 5:30	제2교육관 4층
청 년 2부	오후 12:10	제2교육관 2층

기도원집회 안내 (☎ 031-766-5425)

구 분	시 간	차 량
화요일회	오전 11:00	02:00부터 10:00이후에 출발 09:50부터 10:00이후에 출발
금요일회	저녁 7:00	02:00부터 10:00이후에 출발 09:50부터 10:00이후에 출발
영 아 부	오전 9:00	제1교육관 507호
유 아 부	오전 12:15	제1교육관 407호
유 처 부	오전 12:30	제1교육관 307호
초 중 1부	오전 12:30	제1교육관 407호
초 중 2부	오전 12:30	제1교육관 507호
중 등 부	오전 12:15	갈릴릴루
고 등 부	오전 11:00	제2교육관 4층
대 학 부	(토) 오후 2:00	제2교육관 4층
청 년 1부	(토) 오후 5:30	제2교육관 4층
청 년 2부	오후 12:10	제2교육관 2층

3월 총현 기도의 창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파수나이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의 길이 목숨가는 사순절(3월 9일~4월 23일)이 되게 하시기에 사순절 특별제식기도회에 주례교구 식구들이 전원 참석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2. 총현의 모든 성도가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종(로 3:5)이 될 수 있도록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3. 교회에 등록된 새가족들이 길과 진리와 생명(요 14:6)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4. 위임목사님을 십자가의 복음(고전 15:3-4)을 전하는 은총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의 건강함을 주소서.
5. 십자가의 보혈로 풍성한 생명의 은혜(요 4:24)를 위하여 미리 준비(15분 전 예배식 착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6. 모든 교구와 교회학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천국악단(1:25)이 계속 양성되게 하소서.
7. 1년 11월(1:1) 전도대회 교회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대 13교에 전집전력하게 하소서.
8.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16:15)에 자기를 부린다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9. 총현의 제단들(유지 · 동산 · 복지)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양로원 · 함양총원 등) 및 중원전 사물관과 자선단체(남수협)이 이웃 사랑의 열매(롬 15:2)가 되게 하소서.

24시간 연속 기도실 · 본당 113호

교회주변 주지사 유의사항

교회주변에 있는 거주자우선 주차장에 주차할 경우 긴급자동차 외도로 주차를 금해 주시며, 교회 주차장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
고 인내 불신으로
온 나라 사탄의
는 길이 없도록
유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안
내부의 안내
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심 기 는 분 들

■ 위임목사 김성관

구분	시 간	장 소
주요 I	오전 9:00	본 당
주요 II	오전 9:00	본 당